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

한경석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Pharmacology - Focused on 『Gabobon』 and 『Sinchukbon』 -

Han Kyung-Suk,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s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pharmacology.

2. Methods

We analysis Soyangin pharmacology through pathology and new prescription in 『Gabobon(甲午本)』 and 『Sinchukbon(辛丑本)』 of 『Dongyi Suse Bowon』.

3. Results and Conclusions

New prescription of Soyangin in 『Gabobon』 is same or similar to that in 『Chobonkwon』. So we can recognize that almost Soyangin pharmacology of 『Gabobon』 is made when Dongmu write 『Chobonkwon』. And the maintenance of Yin-Qi is key point of Soyangin's pharmacology.

New prescription of Soyangin is made by regular rules in 『Sinchukbon』. Dongmu say that Hyungkae(荊芥 Bangpung(防風) Kanghwal(羌活) Dokhwal(獨活) is herbs for descending-Yin, and Sukjihwang(熟地黃 Sansuyoo(山茱萸) Bokryung(茯苓) Taeksa(澤瀉) or Saengjihwang(生地黃) Sukgo(石膏) Jimo(知母) is herbs for ascending-Yang. And all new prescription except Sukjihwangkosam-tang(熟地黃苦參湯) is composed of ascending-Yang and descending-Yin's herbs. New prescription of the exterior disease contained all descending-Yin's herbs and that of the interior disease contained all ascending-Yang's herbs completely. Namely when 『Gabobon』 was written Soyangin pharmacology is the maintenance of Yin-Qi by selecting prescription of cold character. And when 『Sinchukbon』 was written, base spirit of Soyangin pharmacology was not changed. Pharmacology was added ascending-Yang and descending-Yin at a time.

Key Words : Soyangin, Pharmacology, Ascending-Yang, Descending-Yin

I. 緒 論

四象醫學의 病證藥理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

本卷』¹⁾(이하 『草本卷』)에서 病證과 藥理가 분리되어 있고 藥方의 대부분 古方²⁾과 유사한 형

• 접수일 2006년 11월 31일; 승인일 2006년 11월 27일
• 교신저자 : 박성식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edu

1) 李濟馬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2) 古方은 漢의 『傷寒論』의 處方뿐만 아니라 宋元明 醫家들의 處方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經驗藥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研究에서는 古方으로 통일하였다.

데였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³⁾(이하 『甲午本』)은 病證과 藥理를 결합하고 있으며 古方인 經驗藥方과 新方⁴⁾을 동시에 기술하면서 新方을 위주로 病證論을 진행한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⁵⁾(이하 『辛丑本』)은 病證論의 전개가 『甲午本』과 유사하며 藥理에 있어 古方인 經驗藥方은 『甲午本』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新方만 개조한다.

東武는 既存醫學⁶⁾에 少陽人 胃熱證藥이 간혹 있다 하였다⁷⁾. 少陰人 病證論의 既存條文에서는 病證 및 新方の 形成過程과 관련된 근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少陽人 病證論의 既存條文의 病證과 藥理를 통해서도 新方이 도출된 形成過程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少陽人 藥理와 관련된 研究로 서⁸⁾의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과 최⁹⁾의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은 『辛丑本』만으로 既存醫學과의 비교를 통해 形成過程을 강조하였고, 배¹⁰⁾¹¹⁾의 “少陽人 藥方の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과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관한 研究”은 약물중심의 형성과정을 강조하였고, 구¹²⁾의 “少陽人處方

活用に 대한 臨床的 研究”은 處方の 臨床的 검증을 강조하였는바 본인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조하면서 변한 少陽人의 基本的인 原理·藥理·藥物을 구분하여 각각의 處方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였다.

이에 필자는 『甲午本』과 『辛丑本』의 少陽人 病證과 新方을 비교연구하여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甲午本』의 少陽人 藥理

1) 『甲午本』 少陽人 表之表病의 藥理

表之表病 大靑龍湯證에는 新方 荊防敗毒散, 防風通聖散을 사용하였다. 이는 張仲景의 病證에 宋元明醫家の 藥理를 사용한 것이다. 新方 荊防敗毒散은 『辛丑本』에서 매우 중요한 處方이었던 것과 달리 『甲午本』에서는 寒多熱少의 大靑龍湯證 및 寒熱往來의 小柴胡湯證에만 사용하였다.

新方 荊防敗毒散은 古方에서 타체질 藥物을 제거하고 忍冬藤·地骨皮·玄蔘을 추가하였다. 新方 防風通聖散은 古方에서 타체질 藥物을 제거하고 羌活·獨活·柴胡·前胡 등의 荊防敗毒散 藥物을 추가하면서 生地黃을 加하였다. 이는 東武가 荊防敗毒散을 少陽人 惡寒發熱의 外感表病 基本處方으로 규정한 것으로 發熱이 甚한 경우에는 生地黃·石膏·滑石의 白虎湯之劑가 들어 있는 防風通聖散을 사용한다. 『東醫寶鑑』의 荊防敗毒散은 傷寒表證의 處方¹³⁾으로 사용하였고, 防風通聖散은 火熱의 通治方¹⁴⁾으로 사용하여 전혀 다른 주치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甲午本』 新方에서는 主要藥物을 제외하고는 藥物構成을 유사하게 가져감으로서 少陽人 病證論에서 같은 범주의 病證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재구성하였다. 두 處方은 荊芥·

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4) 新方은 東武가 새로이 만든 處方으로 古方의 相對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新定藥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研究에서는 新方으로 통일하였다.
 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6) 既存醫學은 黃帝內經 및 傷寒論에서 발전하여 宋元明 醫學을 포함한 證治醫學으로 정의하였다. 東武의 四象醫學은 既存醫學을 바탕으로 獨創的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既存醫學은 四象醫學의 相對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7) 辛丑本 5-5. … 故 其論病論藥 全局都自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 而少陽人胃熱證藥 間或有焉 至於太陰人病情 則全味也.
 8) 서용, 송정모.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7;9(1):213-243.
 9)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8;10(2):61-110.
 10)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の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2;14(3):33-51.
 11) 배효상, 박성식.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3;15(1):12-26.
 12) 구덕모. 少陽人處方 活用に 대한 臨床的 研究 四

象體質醫學會誌. 2005;17(2):52-63.
 13)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8:386.
 14) 上揭書 : 426.

Table 1. Bangpungtongsung-san and Hyungbangpaedok-san of 「Gabobon」

| | 荊防敗毒散 | 防風通聖散 |
|-------|----------------------------|------------------|
| 共通藥物 | 荊芥·防風·羌活·獨活 柴胡·前胡·薄荷·梔子 | |
| 非共通藥物 | 玄蔘·忍冬藤 地骨皮 | 滑石·生地黃 石膏·牛蒡子 |

Table 2. Soshiho-tang and Sihokwaru-tang of 「Gabobon」

| 古方 小柴胡湯 | 교체된 少陽人 藥物 |
|---------|-------------|
| 柴胡 | → 柴胡 |
| 黃芩 | → 黃連 |
| 半夏 | → 瓜蒌實·前胡 |
| 人蔘·甘草 | → 山茱萸·覆盆子 등 |

防風·羌活·獨活·柴胡·前胡·薄荷·梔子が 共通藥物로 構成되어 있고, 防風通聖散에 滑石·生地黃·石膏·牛蒡子が 荊防敗毒散에는 玄蔘·忍冬藤·地骨皮가 다른 藥物들이다. 既存醫學에서 防風通聖散은 一般의인 外感表病에 사용하지 않지만 少陽人 病證에 맞게 변형하여 荊防敗毒散의 연계선상에 두게 된다 (Table 1).

表之表病 小柴胡湯證에는 荊防敗毒散·千金導赤散·柴胡芩蘘湯을 사용하였다. 古方 小柴胡湯은 柴胡 외에는 모두 타체질藥物로 構成되어 있어 少陽人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新方 千金導赤散과 柴胡芩蘘湯의 藥物構成은 古方 小柴胡湯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寒熱往來에 사용하는 柴胡는 그대로 사용되고, 淸熱藥인 黃芩은 黃連으로 바뀌고, 祛痰劑인 半夏는 瓜蒌實·前胡로 바뀌고, 人蔘·甘草는 保命之主를 補充하는 山茱萸·覆盆子 등으로 바뀌어 유사한 效能을 가진 藥物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Table 2).

千金導赤散과 柴胡芩蘘湯은 生地黃·木通의 古方 導赤散을 基源處方으로 하여 變形된 小柴胡湯之劑인 柴胡·黃連·瓜蒌實·前胡·

山茱萸·覆盆子가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大靑龍湯證을 제외한 少陽人 表之表病의 桂麻·桂婢各半湯證, 小柴胡湯證, 結胸證 에는 모두 古方 導赤散과 小柴胡湯의 藥理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導赤散과 관련된 既存條文은 찾아볼 수 없다.

『甲午本』 少陰人 表之表病의 太陽病·太陽病胃家實·太陽病厥陰證의 藥理가 모두 다르지만 少陽人 表之表病은 세부적으로 여러 病證이 기술되지만 輕證에는 荊防敗毒散·防風通聖散의 藥理가 사용되고 重證부터는 古方 導赤散과 小柴胡湯에서 基源한 千金導赤散·柴胡芩蘘湯의 藥理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통합된 藥理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新方 荊防敗毒散, 防風通聖散, 千金導赤散 柴胡芩蘘湯은 『草本卷』에 동일한 處方이 있는 것을 볼 때 『甲午本』 少陽人 表病證의 病證藥理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甲午本』 少陽人 表之裏病의 藥理

表之裏病 腹痛·泄瀉에는 柴胡四苓散·八味苦蔘湯加石膏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少陽人 腹痛·泄瀉에는 柴苓湯의 藥理를 사용하였는데 東武는 비록 “此證 柴苓湯 藥力單薄 重病急證快無可恃 而人蔘半夏阿膠甘草黃芩 皆爲蠱藥 元不當用 柴苓湯即小柴胡湯合猪苓湯者”라 하여 古方 柴苓湯의 藥力이 약하여 사용할 수 없다하여 古方 柴苓湯(小柴胡湯+猪苓湯)의 藥理를 사용하여 少陽人 에 맞게 바꾼 재구성한 것이 新方 柴胡四苓湯이다. 그리고 이 處方은 柴苓湯證의 既存條文과 같이 熱性 泄瀉에 주안점을 둔 處方으로 볼 수 있다.

八味苦蔘湯은 同名の 處方이 이미 『草本卷』에서 “治吐血 嘔吐 腸病 痞滿證”라는 主治症이 유사하지만 藥物構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甲午本』에서 “治吐血嘔吐腹痛痞滿”이라 하여 消化器疾患에 사용하는 處方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泄瀉에 사용할 수 있는 茯苓·澤瀉가 各一錢씩 사용된 것을 볼 때 泄瀉를 치

Table 3. The Prescriptions of Exterior's Interior Disease

| | 甲午本 | | 草本卷 |
|-----|-------|-------|-------|
| | 柴胡四苓湯 | 八味苦參湯 | 八味苦參湯 |
| 生地黃 | | 4 | 4 |
| 山茱萸 | | 2 | 2 |
| 牡丹皮 | | 1 | ○** |
| 澤瀉 | 2 | 1 | 1 |
| 赤茯苓 | 2 | 1 | 1 |
| 木通 | | | ○** |
| 猪苓 | 2 | | |
| 車前子 | 1 | | |
| 柴胡 | 2 | | |
| 黃連 | 1 | | |
| 芩蘘實 | 1 | | |
| 滑石 | 1 | | |
| 苦參 | | 2 | 2 |
| 覆盆子 | | 2 | 2 |
| 知母 | | 2 | 2 |
| 石膏 | | ○* | |
| 目標 | 泄瀉 | 腹痛 | |

* : 八味苦參湯加石膏의 石膏이다. 분량은 龔
 ** : 七味苦參湯加木通牡丹皮 가 八味苦參湯이다.

료하는 效能은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生地黃·石膏·知母 등의 清熱藥物로써 茯苓·澤瀉와 함께 證治醫學의 시각의 濕熱로 인한 腹痛을 치료하는 效能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八味苦參湯加石膏는 『辛丑本』 少陽人亡陰病의 마지막 治驗例 15)에 기술한 荊防地黃湯加石膏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八味苦參湯은 동일한 處方이 이미 『草本卷』에 존재하지만 柴胡四苓湯 藥理은 『甲午本』에서 새로이 형성되었다(Table 3).

3) 『甲午本』 少陽人 裏之表病의 藥理

裏之表病 消渴에는 地黃白虎湯·綿上添花白虎湯·渡海白虎湯·猪苓白虎湯·陽毒白虎湯을 사용하였다. 즉 病證의 특징에 따라서 白虎湯類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讞語에 사용하는 白虎湯이 3種類이며, 大小便不通에 猪苓

15) 『辛丑本』 9-44. 其後 又有一少陽人十七歲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Table 4. Many Baekho-tang of 『Gabobon』

| | (地黃) 白虎湯 | 錦上添花 白虎湯* | 渡海 白虎湯 | 猪苓 白虎湯 | 陽毒 白虎湯 |
|-----|----------|-----------|--------|--------|--------|
| | 石膏 | 4 | 4 | 4(2)** | 4 |
| 生地黃 | 4 | 4 | 2 | 4 | 4 |
| 知母 | 2 | 2 | 2 | 2 | |
| 山茱萸 | | 2 | 2 | | |
| 覆盆子 | | 2 | 2 | | |
| 肉蓯蓉 | | | 2 | | |
| 苦參 | | | 1 | | |
| 枸杞子 | | | 1 | | |
| 黃柏 | | | | 1 | |
| 澤瀉 | | | | 1 | |
| 猪苓 | | | | 1 | |
| 赤茯苓 | | | | 1 | |
| 荊芥 | | | | | 1 |
| 牛蒡子 | | | | | 1 |
| 羌活 | | | | | 1 |
| 獨活 | | | | | 0.5 |
| 柴胡 | | | | | 0.5 |
| 玄參 | | | | | 0.5 |
| 山梔子 | | | | | 0.5 |
| 忍冬藤 | | | | | 0.5 |
| 薄荷 | | | | | 0.5 |
| 主治證 | | 治讞語 | 治讞語 | 治大小便不通 | |

分量은 錢

* : 草本卷에 처방명이 없고 山茱萸, 覆盆子는 분량 표시 없이 “加山茱萸 覆盆子尤妙”라고 되어 있다.
 ** : ()안의 분량표시는 草本卷 渡海白虎湯의 분량이다.

白虎湯을 사용하고, 陽毒에 荊防敗毒散 藥物인 荊芥·防風·羌活·獨活·柴胡·薄荷와 消毒飲 藥物인 牛蒡子·荊芥를 가한 陽毒白虎湯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處方들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草本卷에 존재한다. 즉 비교적 이른 시기에 白虎湯類의 病證과 藥理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Table 4).

裏之表病 癰疽強中에는 清涼散火湯·防風通聖散·陽毒白虎湯을 사용한다. 防風通聖散은 表之表病 發熱惡寒而熱多에서 이미 한번

기술되었고, 陽毒白虎湯은 裏之表病 消渴에서 한번 기술되었고, 淸涼散火湯은 癰疽強中에서 처음 기술된다. 淸涼散火湯은 消渴의 名藥인 忍冬藤을 主藥으로 사용하여¹⁶⁾ 白虎湯藥物인 生地黃·石膏 및 敗毒散의 荊芥·防風·薄荷 등으로 處方을 構成하였다.

4) 『甲午本』 少陽人 裏之裏病의 藥理

『甲午本』 裏之裏病에는 水火既濟湯·七味苦參湯·七味猪苓湯·六味地黃湯을 사용하였다. 이 處方들은 모두 『草本卷』에 이미 존재한 處方들로 七味苦參湯·七味猪苓湯은 『草本卷』과 藥物構成이 동일하며, 水火既濟湯은 『草本卷』에서 乾地黃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甲午本』에서는 추가되었고, 六味地黃湯은 草本卷에서 藥物構成 및 主治證이 기술되었으나¹⁷⁾ 『甲午本』에서는 藥物構成을 알 수 없다. 水火既濟湯·七味苦參湯·七味猪苓湯의 세 處方에는 生地黃·山茱萸·茯苓·澤瀉·覆盆子の 공통藥物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는 熟地黃이 生地黃으로 대치된 古方 六味地黃湯 藥材들로서 古方 六味地黃湯이 基源處方이다. 『草本卷』에서 水火既濟湯을 사용하여 腹痛·嘔吐·痞滿을 치료하고, 七味苦參湯에 木通·牡丹皮를 가미한 八味苦參湯이 吐血·嘔吐·腸病·痞滿證을 치료하고, 六味地黃湯에 竹瀝·生地黃을 가미하여 吐血을 치료하고, 七味猪苓湯의 主治證은 설명되고 있지 않다. 『甲午本』 少陽人 新定藥方에서 水火既濟湯에 대한 主治證이 설명되지 않고, 七味苦參湯에 牡丹皮를 가미한 八味苦參湯이 吐血·嘔吐·腹痛·痞滿을 치료하고, 六味地黃湯은 新方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七味猪苓

湯에 牡丹皮를 가미한 八味猪苓湯은 腹痛·嘔吐·痞滿을 치료한다. 그런데 『甲午本』 「少陽人 泛論」에서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을 表之裏病에 배속한다. 『甲午本』 少陽人 病證論에서 腹痛은 表之裏病에서 다루어지고, 嘔는 表之表病 小柴胡湯證에서 裏熱上逆의 證狀으로 한번 설명되고 裏之裏病 陰虛午熱 陰水背寒而嘔의 證狀으로 한번 설명된다. 그래서 病證과 處方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 있다. 水火既濟湯·七味苦參湯·七味猪苓湯은 『草本卷』과 『甲午本』 新定藥方에서 少陽人 病證論과 관계없이 主治證만 보았을 때 消化器疾患의 處方으로 볼 수 있다. 少陽人은 基本的으로 火熱病證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證治醫學의 시각에서 消化器에 病證이 발생하면 水濕 또는 濕熱이 발생한다. 그래서 水濕·濕熱을 除去하는 少陽人 藥物로 茯苓·澤瀉·苦參 등을 사용하고, 陰氣를 補充해주는 藥物로 生地黃·覆盆子·山茱萸·苦參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東武가 古方 六味地黃湯을 消化器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變形시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新方の 主治證과 四象人 病證 사이에 복잡한 양상을 가지게 된 것은 『草本卷』과 『甲午本』의 表裏輕重의 認識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Table 5).

Table 5. The Prescription of Interior's Interior Disease

| | 草本卷 | 甲午本 |
|-------|-----------------------|-------------------|
| 水火既濟湯 | 腹痛·嘔吐·痞滿 | 主治證이 없음 |
| 七味苦參湯 | 吐血·嘔吐·腸病·痞滿證(加木通·牡丹皮) | (加牡丹皮)吐血·嘔吐·腹痛·痞滿 |
| 六味地黃湯 | 吐血(加竹瀝·生地黃) | 藥物構成과 主治證 없음 |
| 七味猪苓湯 | 主治證이 없음 | (加牡丹皮)腹痛·嘔吐·痞滿 |

- 中風·吐血·嘔吐·食滯·痞滿은 『甲午本』 「少陽人 泛論」에서 表之裏病에 배속함
- 腹痛은 『甲午本』에서 表之裏病으로 다룸.
- 嘔는 『甲午本』에서 ① 表之表病小柴胡湯證에서 裏熱上逆 證狀 ② 裏之裏病陰虛午熱 陰水背寒而嘔 證狀 으로 다룸.

16) 『甲午本』 少陽人 裏病證 2條. 消渴 須 預 防 癰 疽 忍 冬 藤 不 拘 多 少 根 莖 花 葉 皆 可 服
 17) 『草本卷』 12-2. 六味地黃湯 治內傷虛勞虛損 本方 加 地 骨 皮 貝 母 各 一 錢 名 曰 地 骨 皮 地 黃 湯 治 盜 汗 咳 嗽 加 黃 柏 知 母 各 二 錢 名 曰 知 柏 地 黃 湯 治 陰 虛 便 血 加 牛 膝 車 前 子 各 一 錢 治 水 腫 加 竹 瀝 生 地 黃 治 吐 血 虛 損 者 十 五 日 三 十 貼 服 之 虛 勞 者 百 五 十 日 三 百 貼 服 之 用 水 三 瓢 煮 成 一 瓢 炭 火 濃 煎 半 空 心 日 再 服 熟 地 黃 四 錢 山 茱 萸 枸 杞 子 各 三 錢 白 茯 苓 澤 瀉 各 二 錢 牡 丹 皮 一 錢

2. 『辛丑本』의 少陽人 藥理

1) 『辛丑本』 少陽人의 基本藥理

荊芥·防風·羌活·獨活은 補陰藥¹⁸⁾이고 古方 龔信所製荊防敗毒散은 少陽人表寒病의 三神山不死藥¹⁹⁾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辛丑本』에서는 荊防敗毒散之劑인 荊芥·防風·羌活·獨活은 表部의 陰氣를 下降(降表陰)하는 藥物로 사용한다. 그런데 荊芥·防風·羌活·獨活은 降表陰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表裏病證에 사용되는 處方을 살펴보면 表病證 新方은 荊芥·防風·羌活·獨活이 모두 사용되고 裏病證 新方은 대부분 네 藥物 중에서 두 개만 사용되는 共通점을 발견할 수 있다.

白虎湯之劑(生地黃·石膏·知母) 또는 六味地黃湯之劑(熟地黃·山茱萸·茯苓·澤瀉)는 裏部의 陽氣를 上升(升裏陽)하게 한다. 白虎湯之劑와 六味地黃湯之劑는 升裏陽의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表裏病證에 사용되는 藥物을 살펴보면 表病證 新方은 白虎湯之劑 중에서 1~2개의 藥物이 있거나 六味地黃湯之劑 중에서 牡丹皮가 제거되고 熟地黃의 分量을 줄여서 사용되며, 裏病證 新方은 白虎湯之劑 또는 六味地黃湯之劑를 모두 사용하는 共通점을 볼 수 있다. 『甲午本』은 既存醫家들이 설명한 火熱病을 위주로 少陽人 病證藥理를 밝혔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處方은 陰清之氣를 보완할 수 있는 淸藥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어 六味地黃湯之劑의 熟地黃을 生地黃으로 바꾸기도 한다. 『辛丑本』에서 새로이 만든 新方은 철저하게 升陽과 降陰을 동시에 하면서 表病證 處方은 降陰에 중점을 두고 裏病證 處方은 升陽에 중점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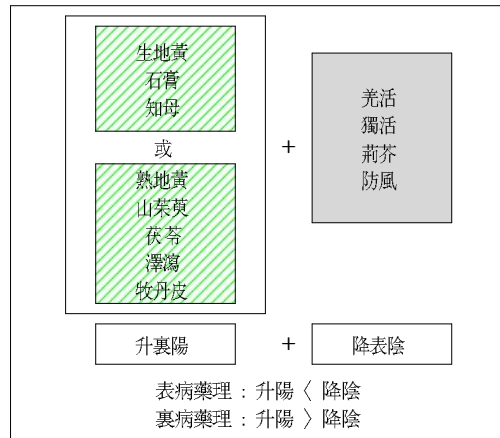


Fig. 1. Ascending-Yang and Descending-Yin of 『Sinchukbon』
辛丑本 少陽人 病證論의 基本藥理

게 된다. 그래서 少陽人 藥理는 『甲午本』에서 陰淸之氣를 補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辛丑本』에서는 降表陰而升裏陽하는 것이 治療의 목적으로 表裏病證論 전체에 升陽과 降陰을 동시에 하는 概念이 새로이 생긴다(Fig. 1).

2) 『辛丑本』 少陽人 少陽傷風證의 藥理

大靑龍湯證에는 荊防敗毒散을 사용하고, 小柴胡湯證에는 荊防敗毒散·荊防瀉白散·荊防導赤散을 사용하고, 結胸證에는 荊防導赤散加茯苓澤瀉를 사용한다.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은 공통적으로 降表陰하는 荊芥·防風·羌活·獨活과 淸裏熱하여 升裏陽하는 生地黃이 사용된다. 그리고 主要藥物으로써 이 處方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淸하지 않은 火熱證에는 降陰을 위주로 하면서 升陽하는 荊防敗毒散을 사용하고, 조금 淸한 火熱證에는 生地黃의 分量을 늘려 荊防敗毒散보다 淸裏熱하여 升陽하는 效力을 높인 荊防導赤散을 사용하고, 淸한 火熱證에는 生地黃·石膏·知母를 모두 사용하여 升陽(淸裏熱)의 效力을 높인 荊防瀉白散을 쓴다.

荊防導赤散은 『甲午本』의 千金導赤散·柴胡瓜蒌湯을 基源處方으로 하고 있다. 이 處方들은 동일하게 生地黃·木通의 導赤散之劑를 사

18) 『辛丑本』 少陽人 新定藥方 荊防地黃湯 ...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淸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 ...

19) 『辛丑本』 9-8. ... 然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病不轉變之藥 則從古斯今 得此病者 真是寒心矣 耳聾 脇滿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 擬之乎 噫 後來龔 信所製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表寒病三神山不死藥乎 此證 淸裏熱而降表陰 則痰飲 自散 而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淸痰而燥痰 則無益於陰降痰散 延 拖結胸 將成 而或別生奇證也

용하고, 『辛丑本』新方 荊防導赤散의 生地黃·木通은 『草本卷』導赤散²⁰⁾과 분량이 동일하다. 古方 小柴胡湯은 柴胡 외에는 타체질약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甲午本』의 千金導赤散·柴胡瓜蒌湯은 古方 小柴胡湯의 의도로 柴胡가 사용되고 이는 小柴胡湯의 藥理를 반영한 것으로 既存醫學의 藥理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면, 『辛丑本』 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은 비록 小柴胡湯證에 사용하지만 柴胡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既存醫學의 藥理에서 벗어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東武는 龔信이 만든 荊防敗毒散을 少陽人 表寒病의 三神山不死藥이라 小柴胡湯證에 清裏熱·降表陰하게 되면 痰飲이 自散하여 結胸證을 예방할 수 있으며 清痰·燥痰의 방법이 도움이 안될 뿐이라 하였다. 『辛丑本』 少陰人의 表病證 新方은 升陽하고 裏病證 新方은 降陰하는 목적이 있지만, 少陽人 表寒病證의 모든 新方은 降陰과 升陽을 동시에 하는 특징이 있다.

3) 『辛丑本』 少陽人 亡陰病의 藥理

亡陰病 身熱頭痛泄瀉에는 猪苓車前子湯·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亡陰病 身寒腹痛泄瀉에는 滑石苦參湯·荊防地黃湯을 사용한다. 이 네 處方은 공통적으로 降陰하는 荊芥·防風·羌活·獨活을 사용하고, 少陽人 險危證에는 小便不利하기 때문에 茯苓·澤瀉를 사용한다. 그리고 身熱頭痛泄瀉에는 清熱에 좀 더 주력하여 白虎湯之劑인 (生地黃)·知母·石膏를 사용한다.

荊防地黃湯은 表病證 處方 중에서 유일하게 熟地黃을 사용한 新方으로 古方 六味地黃湯之劑인 熟地黃·山茱萸·茯苓·澤瀉에 陰虛浮腫에 사용하는 車前子가 加味²¹⁾되어 있고 降陰하는 荊芥·防風·羌活·獨活이 사용되어 매우 단순한 약물구성을 이루고 있다. 荊防地黃湯은 表病證 處方으로써 裏病證의 獨活地黃湯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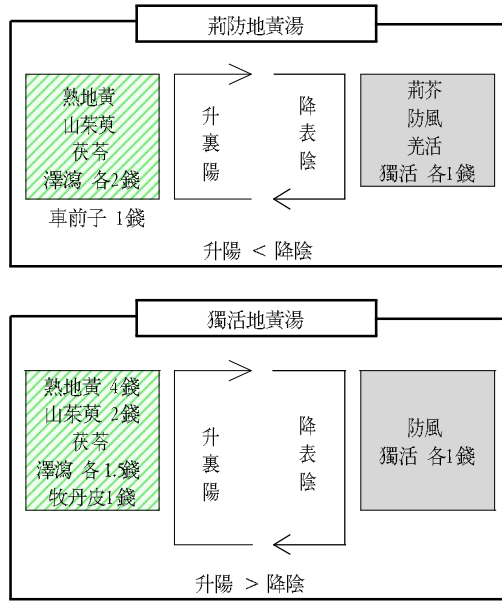


Fig. 2. Hyungbangjihwang-tang and Dokhwajihwang-tang of 『Sinchukbon』

슷한 藥物들로 이루어져서 構成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處方같지만 『辛丑本』의 시각에서 본다면 두 處方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荊防地黃湯은 熟地黃의 분량이 2錢으로 적게 사용되었으며 茯苓·澤瀉는 2錢으로 다른 六味地黃湯之劑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牧丹皮를 사용하지 않는다. 少陽人 表病證 新方에서 東武는 升陽을 위해 대부분 白虎湯之劑만을 사용해 왔으나 荊防地黃湯은 六味地黃湯之劑의 분량을 다시 조정하여 升陽시킨 것으로 『辛丑本』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며 그 效能에 대한 臨床的 經驗²²⁾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荊防地黃湯은 升陽하는 熟地黃의 분량을 줄이면서 牧丹皮를 제거하고 降陰하는 荊芥·防風·羌活·獨活을 모두 사용하여 降陰에 주안점을 두면서 升陽시키는 處方이고, 獨活地黃湯은 山藥을 제거한 六味地黃

20) 『草本卷』 12-9. 導赤散 治外感內熱 其證 目赤 頭痛 小便赤澀 生地黃 三錢 木通 二錢

21) 『草本卷』 12-2. 六味地黃湯 治內傷虛勞虛損 ... 加牛膝 車前子 各一錢 治水腫

22) 『辛丑本』 9-44. 其後 又有一少陽人十七歲女兒 素證 間有悖氣 ...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二貼藥力 十倍於知母白虎湯 ...

湯之劑를 원래 분량 그대로 사용하면서 降陰시키는 藥物으로써 獨活·防風만 사용하여 升陽에 주안점을 두면서 降陰시키는 處方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獨活地黃湯과 荊防地黃湯은 서로 비슷한 藥物을 사용하여 升陽·降陰을 하고 있으나 얻고자 하는 효능²³⁾은 서로 다르다(Fig. 2).

藥物構成만을 보았을 때 荊防地黃湯은 獨活地黃湯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藥物構成의 病證論의 의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荊防地黃湯은 荊防瀉白散과 유사한 의도로 만든 處方으로 보인다. 荊防地黃湯과 獨活地黃湯은 泄瀉가 있는 경우에 茯苓·澤瀉를 위주로 荊芥·防風·羌活·獨活을 사용하여 여섯 藥物의 분량까지 동일하게 만든 공통점이 있으며 성질이 찬 生地黃·石膏·知母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성질이 따뜻한 熟地黃·山茱萸를 사용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荊防地黃湯은 古方 六味地黃湯의 藥理도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泄瀉라는 病證에 東武가 새로 만든 藥理의 荊防瀉白散을 증상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Table 6).

Table 6. Hyungbangsabaek-san and Hyungbangjihwang-tang of 『Sinchukbon』

| 荊防瀉白散 | | 荊防地黃湯 | |
|-------|---|-------|-----|
| 生地黃 | 3 | 2 | 熟地黃 |
| 石膏 | 1 | 2 | 山茱萸 |
| 知母 | 1 | 1 | 車前子 |
| 茯苓 | 2 | 2 | 茯苓 |
| 澤瀉 | 2 | 2 | 澤瀉 |
| 荊芥 | 1 | 1 | 荊芥 |
| 防風 | 1 | 1 | 防風 |
| 羌活 | 1 | 1 | 羌活 |
| 獨活 | 1 | 1 | 獨活 |

分量은 錢

23) 荊防地黃湯은 表病證 身寒腹痛泄瀉에 사용하고 獨活地黃湯은 裏病證 陰虛午熱飲水背寒而嘔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效能이 서로 다르다.

4) 『辛丑本』 少陽人 胸膈熱證의 藥理

胸膈熱證 胃熱證(大便不通 主訴)에는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을 사용한다. 『甲午本』에서 病證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던 白虎湯類는 『辛丑本』에서는 地黃白虎湯을 중심으로 통합한 것이다. 地黃白虎湯은 升陽(清熱)하는 白虎湯(生地黃·石膏·知母)을 중심으로 降陰하는 獨活·防風이 더해진 處方이다. 또한 陽毒白虎湯은 地黃白虎湯 藥物에 牛蒡子를 가한 것으로 『甲午本』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간략하다.

石膏는 既存醫學에서 大便不通에 사용하는 藥이 아니지만²⁴⁾ 東武는 大便不通의 中心藥物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少陽人 表病證에 사용하는 荊防瀉白散·豬苓車前子湯과 같이 礮을 사용하면 傷寒論 白虎湯과 같이 清熱하는 作用을 하는 效能이 있지만, 裏病證에서 地黃白虎湯과 같이 5錢 以上으로 分量을 많게 하면 清熱을 강력히 하여 陰氣를 크게 보완하여 二次의 作用으로 大便通의 效果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Table 7).

胸膈熱證 消渴에는 涼膈散火湯(上消), 忍冬藤地骨皮湯(中消), 熟地黃苦參湯(下消)을 사용한다.

Table 7. Soyangin's Baekho-tangs of 『Sinchukbon』

| | 地黃白虎湯 | 陽毒白虎湯 |
|-----|-------|-------|
| 石膏 | 5~10 | 5~10 |
| 生地黃 | 4 | 4 |
| 知母 | 2 | 2 |
| 獨活 | 1 | |
| 防風 | 1 | 1 |
| 荊芥 | | 1 |
| 牛蒡子 | | 1 |

分量은 錢

24) 石膏는 既存 本草學 書籍인 『東醫寶鑑』 「湯液」, 『本草學』(영림사), 『申氏本草學』(壽文社), 『中藥大辭典』(정담) 등을 찾아봤을 때 大便不通 大便秘와 관련된 效能은 없다.

凉膈散火湯은 『甲午本』 少陽人 中消之危證인 癰疽強中에 사용하는 清涼散火湯이 基源處方으로 생각된다. 升陽하는 生地黃·石膏·知母의 白虎湯之劑에 降陰하는 防風·荊芥를 중심으로 忍冬藤·連翹·山梔子·薄荷를 사용하였다. 忍冬藤은 『甲午本』에서 癰疽強中에 주요 藥物로 사용하였는데 『辛丑本』에서는 癰疽強中을 豫防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連翹·山梔子·薄荷는 煩躁·口舌生瘡·目赤頭昏에 사용하는 古方 凉膈散의 藥物로 白虎湯之劑의 效能을 높여주고 있다. 凉膈散火湯은 石膏 1錢으로 表病證의 荊防瀉白散·猪苓車前子湯과 石膏分量이 동일하며 古方 凉膈散之劑는 大便不通과 관련된 藥物이 아니기 때문에 上消는 大便不通과 관련된 病證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地黃白虎湯의 石膏 5錢과 같이 비록 通便藥이 아니지만 清熱을 강력히 하면 通便의 效能을 발휘하는 것처럼, 古方 凉膈散之劑가 少陽人에게 二次의인 作用으로 通便하는 效能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少陽人 消渴에서 中消·下消가 石膏가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通便할 수 있는 處方이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8).

忍冬藤地骨皮湯은 凉膈散火湯과 같이 『甲午本』 清涼散火湯이 母體處方으로 보인다. 白虎

湯之劑의 生地黃·知母 및 六味地黃湯之劑의 山茱萸로 升陽하고 荊芥·防風으로 降陰한다. 그리고 忍冬藤을 4錢 사용하여 主藥으로 설정하였기에 癰疽·強中과 같이 消渴로 인한 合併症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熟地黃苦參湯은 『辛丑本』 少陽人 病證論 중의 處方 중에서 유일하게 降陰하는 荊芥·防風·羌活·獨活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甲午本』에서 사용하던 知母·黃栢(清虛熱)의 藥物配伍를 사용하고 있다. 즉 『辛丑本』의 藥物構成原則에서 벗어난 處方이다. 古方 六味地黃湯之劑가 升裏陽을 하고 있으며, 知母·黃栢은 『辛丑本』 藥理에서 말하는 降表陰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며 陰虛午熱證로 인한 虛熱을 除去하여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도와주는 藥物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5) 『辛丑本』 少陽人 陰虛午熱의 藥理

陰虛午熱에는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을 사용한다. 獨活地黃湯은 升陽하는 熟地黃·山茱萸·茯苓·澤瀉·牡丹皮에 降陰하는 防風·獨活로 구성되어 있는데 獨活·防風을 제외하고 古方 六味地黃湯과 分量까지 같다. 十二味

Table 8. Yangkyuksanhwa-tang of 『Sinchukbon』

| 藥物 | 分量 | 비고 |
|-----|----|-----------|
| 生地黃 | 2 | 升裏陽 |
| 知母 | 1 | |
| 石膏 | 1 | |
| 防風 | 1 | 降表陰 |
| 荊芥 | 1 | |
| 忍冬藤 | 2 | 消渴 豫防發癰疽 |
| 連翹 | 2 | 古方 凉膈散 藥物 |
| 山梔子 | 1 | |
| 薄荷 | 1 | |

分量은 錢

Table 9. Dokhwajuhwang-tang and Sibimijuhwang-tang of 『Sinchukbon』

| | 獨活地黃湯 | 十二味地黃湯 |
|-----|-------|--------|
| 熟地黃 | 4 | 4 |
| 山茱萸 | 2 | 2 |
| 茯苓 | 1.5 | 1.5 |
| 澤瀉 | 1.5 | 1.5 |
| 牡丹皮 | 1 | 1 |
| 防風 | 1 | 1 |
| 獨活 | 1 | |
| 荊芥 | | 1 |
| 地骨皮 | | 1 |
| 玄參 | | 1 |
| 枸杞子 | | 1 |
| 覆盆子 | | 1 |
| 車前子 | | 1 |

分量은 錢

地黃湯은 獨活地黃湯之劑에 下焦의 氣運을 보완하는 藥物을 추가한 것이다 (Table 9).

Ⅲ. 總括 및 結論

少陽人의 基本的 藥理는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확보하는 것이다. 陰清之氣의 확보는 『東武遺稿』에서는 升降開闔의 '降'이라 하였고, 『草本卷』에서는 '清腸'이라 하였다. 그래서 少陽人 藥物은 대부분 下降 또는 清熱하는 效能이 있다.

『草本卷』의 少陽人 處方의 處方名을 보면 절반 가량이 동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르다. 그리고 處方構成은 既存處方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既存處方에서 다른 體質의 藥物을 빼고 필요한 藥物을 추가한 것으로 證治醫學의 성격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甲午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病證論에서 病證과 藥理가 결합한 것이다. 여러 病證을 크게 통합하여 區分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통합된 病證에 따라 處方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甲午本』의 少陽人 新方은 대부분 『草本卷』에서 기술되었던 것이다. 즉 『甲午本』 少陽人의 藥理는 이미 『草本卷』 때에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病證 역시 『草本卷』에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부분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甲午本』 少陰人 病證論의 상당수가 既存病證과 既存處方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既存處方을 통해 新方을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甲午本』 少陽人 病證論에서는 新方の 母體가 되는 處方과 病證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表之裏病의 柴芩湯證과 柴胡四芩散 정도 밖에 없다. 즉 少陰人 病證藥理는 病證의 통합과 더불어 藥理를 새로이 형성하였기 때문에 病證에 맞는 新方은 『草本卷』의 것과 달리 거의 새로운 것이었지만, 少陽人 病證藥理는 이미 『草本卷』에서 형성된 藥理를 토대로 病證을 통합했기 때문에 少陰人의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辛丑本』 少陽人 病證論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藥理이다.

먼저 處方의 경계가 명확해 졌다. 『甲午本』의 七味苦參湯, 七味猪苓湯, 水火既濟湯 등과 같이 主治證과 病證論의 내용이 달라 경계가 분명한 處方이 있었다. 그러나 『辛丑本』에서는 處方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表病의 處方을 裏病에 사용하거나 裏病의 處方을 表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성질이 微溫한 熟地黃을 사용한다. 『甲午本』에는 水火既濟湯에서 熟地黃을 生地黃과 함께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熟地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古方 六味地黃湯의 藥理를 사용하는 新方은 熟地黃을 生地黃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辛丑本』에서는 古方 六味地黃湯의 藥理를 사용한 新方들은 모두 熟地黃을 사용한다. 이는 火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滋陰이라는 證治醫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세 번째로 『辛丑本』의 少陽人 新方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降表陰하는 藥物은 荊芥·防風·羌活·獨活로 규정하고, 升陽하는 藥物로 熟地黃·山茱萸·茯苓·澤瀉·牡丹皮 또는 生地黃·石膏·知母로 규정한다. 그리고 熟地黃苦參湯을 제외한 모든 新方に 升陽과 降陰하는 藥物을 동시에 사용한다. 表病證 新方은 降陰하는 藥物을 모두 사용하고, 裏病證 新方에는 升陽하는 藥物을 모두 사용한다. 즉 少陽人 藥理는 『甲午本』에서 단순히 陰清之氣를 補完하는 목적에서 성질이 찬 處方을 사용하였지만, 『辛丑本』에서는 陰清之氣를 補完한다는 기본 바탕에서 降表陰而升裏陽하는 것을 목적으로 表裏病證論 전체에 升陽과 降陰을 동시에 하는 藥理가 새로이 생긴다.

Ⅳ. 參考文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著, 梁명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서울, 1999.
4. 李濟馬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5.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8.
6. 서웅, 송정모.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7;9(1):213-243.
7.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8;10(2):61-110.
8.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の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2;14(3):33-51.
9. 배효상, 박성식.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3;15(1):12-26.
10. 구덕모. 少陽人處方 活用に 대한 臨床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5;17(2):52-63.

K C I